

간질의 진단과 치료

효과적인 항경련제의 등장으로 간질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진 지금도,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간질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간질을 초자연적 힘에 의한 불치병이나 유전병, 정신병 정도로 잘못 인식하고 막연한 두려움이나 위화감을 가지고 간질환자를 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조차 병을 숨기고 편견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간질환자의 치료에 중요한 것으로, 질병 자체의 치료와 함께 간질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편견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김 범 생
가톨릭의대 신경과

간질이란 무엇인가?

간질이란 뇌신경세포가 일시적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의식의 소실이나, 발작, 행동의 변화 등 뇌기능의 일시적 마비를 나타내는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경련 상태와 간질을 구별해야 하는데 경련발작이란 갑작스런 몸의 떨림이나 뒤틀림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간질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간질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간질에서의 신경세포의 이상 흥분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알려진 원인으로는 나이에 따라 주요한 원인들이 달라지는데 (1) 신생아에서는 출생시의 저 산소증, 선

천적 기형, 대사이상, 감염성 질환들이 있고, (2) 아이들이나 사춘기에서는 출생시의 손상, 머리 부상, 감염성 질환들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3) 어른에게는 머리 부상이나 뇌종양, 동정맥기형이 많고, (4) 노인이 되면 뇌경색이



간질하면 흔히 유전하는 질환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으나 유전과 관련된 간질은 0.5~1.5%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다도 훨씬 드물게 나타난다.

나 뇌출혈 이후에 생기는 간질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게 된다. 간질하면 흔히 유전하는 질환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으나 유전과 관련된 간질은 0.5~1.5%로 우리 나라에서는 이 보다도 훨씬 드물게 나타난다.

현재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

미국의 통계를 참고할 때 인간이 일생중 적어도 한번의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는 전체 인구중 약 9%이고 간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인구의 약 0.5~1%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100명당 한명 정도의 간질 환자가 있다고 생각되어 상당히 많은 환자가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간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

우리가 '간질'이라고 하면 머리에 떠올리는 모습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며 입에서 거품을 내어놓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떠는 행동을 보이는 현상이라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나 간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전문가들조차도 알기 힘든 경우가 있다.

간질은 크게 전신 발작과 부분 발작으로 나뉜다. 전신 발작은 뇌 전체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의식의 소실이 있게 되고 부분 발작은 의식의 변화가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한쪽 손 발에 갑

간질은 크게
전신발작과
부분발작으로
나뉜다.

자기 힘이 빠진다는지, 감각의 이상이나 소리, 빛 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있다는지, 갑자기 심장이 뛰고 땀이 나거나 배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간질의 종류를 나누는 것은 이 질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간질의 종류마다 치료약에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 치료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간질을 어떻게 진단하나?

간질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하고 정확한 병력의 청취이다. 경련이 있을 당시 환자나 보호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진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증상의 목격자는 증상이 처음 나타나서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순서대로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이 있었는지,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입맛을 다시거나 먼 곳을 멍하니 바라보는 행동을 했는지, 고개가 돌아갔으면 어느 쪽으로 돌아갔는지, 혀를 깨물거나 자기도 모르게 옷에 소변을 보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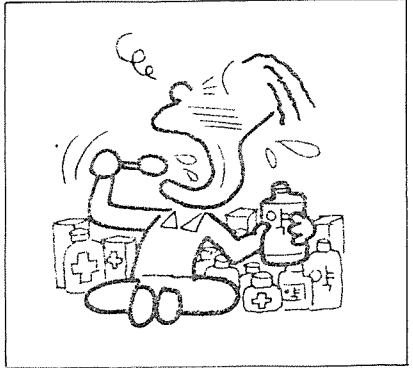
간질의 진단에 뇌파 검사가 중요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간질이 있는 사람에게 뇌파 검사를 해보면 처음 검사에서 간질파가 잡힐 확률이 약 50%, 세번을 반복해도 간질파를 잡을 확률이 80~90%로 뇌파상 이상이 없다고 간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간질양파는 정상인의 약 2%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뇌파상 간질파가 계속 관찰되는 환자도 증상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어 임상적인 진단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요즘에는 뇌파를 24시간 찍으면서 Video tape로 환자의 움직임을 기록해 수술이나 가성간질파의 감별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단층촬영, 핵자기 공명촬영, 혈관 촬영들도 실시한다.

간질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

간질과 비슷한 의식소실, 경련 등의 임상양상이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 편두통, 수면장애(수면발작, 야행증), 대사성, 독성질

환(약물이나 저혈당), 정신과 질환(신체화장애, 공황장애, 해리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서 보일 수가 있다.

흔히 정신과적 질환과 동반되는 가성간질은 간질의 상이 다양하고, 간질이 5분 이상 지속되고, 스트레스를 많



간질은 치료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으면 70~85%의 사람들이 간질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받는 상황에서 잘 생기며,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주로 생기며, 정상적인 뇌파 소견을 보이고, 혀를 깨물거나, 소변을 보는 등의 현상이 없는 수가 많다.

때로는 이러한 질환들을 간질로 잘못 생각하여 오랜기간 항경련제를 쓰거나, 반대로 간질을 다른 질환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병력과 특징적인 임상적, 검사소견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때로는 전문가들도 감별진단이 힘들 수 있다.

간질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간질을 치료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 70~85%의 사람들이 간질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다.

간질의 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원인 및 유발요인의 제거

뇌종양, 뇌혈관 기형, 뇌염, 대사성 질환 및 약물중독 등의 원인이 있으면 제거한다. 과도한 음주나, 수면 시간의 부족, 과도한 피로 등은 간질이 있는 환자에게서 간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므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약물요법

간질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가 다르고 처음 경련

**일단
 약물 투여를
 시작하면
 의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약물의 복용량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거나
 복용을
 중단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제 투여시는 한가지의 약물로 시작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다. 일단 약물 투여를 시작하면 의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중단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데, 이는 갑자기 약물 복용을 중지했을 때 놀려있던 용수철이 더 높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 처음의 간질이 더 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약물은 일단 시작하면 장기 복용(적어도 2~3년)을 해야 하고 어느 정도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음 간질을 경험한 경우 다음번 간질이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항 경련제의 사용을 유보하는 것이 보통이다.

약물의 투여중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관찰과 검사가 필요하고 혈중 약물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치료의 지표로 활용한다. 평소 환자나 보호자들은 자신이나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의사에게 알려 줌으로써 치료에 참여하고 효과도 높일 수 있다. 한 가지의 약물로 조절이 안될 때는 다른 약물로 바꾸거나 두가지 이상의 약물을 같이 투여할 수 있다.

약물을 투여하여 2~3년간 간질 증세없이 잘 지냈고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약을 서서히 줄여 중단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이때 다시 간질이 재발할 확률은 50% 정도로, 약 반 수에서 재발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의사의 지시 없이 약물의 복용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 수술요법

약물로 조절이 안되는 경우에 간질수술을 고려한다. 이 방법은 뇌 속의 간질 병소를 절제해 내는 것으로 최근에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여 치료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모든 간질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국소 병변을 가진 부분발작인 경우에 가장 효과가 좋다.

현재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측두엽 절제술의 경우 50%에서 간질이 완전히 사라지고 25%에서 간질의 횟수가 의미있게 감소한다고 한다.

앞으로 수술요법은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간질에서 더 많이 이용되리라고 생각된다. **73**